

자료제공 : 2024. 1. 9.(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

김만호

02-2133-815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도로관리팀장

원영구

02-2133-8152

서울시, 대설주의보에 제설대책 2단계로 격상...퇴근길 폭설상황에 만반 대응

- 9일(화) 오전9시 서울지역 대설주의보 발령...즉시 제설대책 2단계 격상해 대응 중
- ▲인력8,488명 ▲장비1,168대 투입...제설제 살포, 눈 밀어내기 등 즉시 대응체계
- 출근시간대 1차례 제설제 살포...오후3시 기준 적설량 2.5cm에도 교통 통행 원활
- 오늘 오후·저녁 시간대 강설 대비 철저...퇴근시간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 연장 운행
- 시, “퇴근시간대 강설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,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해줄 것” 당부

- 오늘 오전 9시 기상청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·발효했다. 이에 서울시는 즉시 제설대책을 2단계로 격상하고, 퇴근길에 발생할 수 있는 폭설 상황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.
- 제설대책 2단계에 따라 시는 8,488명의 인력과 1,168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해 강설에 대응하고 있다. 제설제를 살포해 눈을 녹이거나,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기 위한 제설작업 등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고, 도로순찰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.
- 서울시는 이날 대설주의보가 발표·발효되기 전인 새벽 5시30분경 출근길 강설상황에서 제설제를 1차례 살포했고, 오후 3시 현재 기상청 서울관측소

기준 2.5^{cm}의 눈이 내렸으나, 강설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.

- 또한 시는 제설대책 2단계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1~8호선·신림선,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9일(화) 퇴근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 운행해 대중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 - 퇴근 집중배차시간 : (평소) 18시~20시 (연장) 18시~20시 30분
 - ※ 9호선, 우이신설선은 비상대기열차 운용하여 비상시 신속 투입

- 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눈구름대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고 오후나 저녁 시간대 강설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, 퇴근길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고 차량운행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.

-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“서울시는 제설대책 2단계에 따라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”이라며, “시민들께서도 퇴근길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.” 라고 말했다.